

역경과 고난,

씩씩하게 이겨내는 주인공들

기말고사와 방학으로 부담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12월입니다. 학교를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도 싶고, 최근 인기몰이를 한다는 미술 전시도 가보고 싶은 학생들. 그러나 막상 학교담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상상이라도 해보죠. 모터사이클을 타고 남미대륙을 횡단하는 기분을, 안데스산맥을 가로질러 칠레 해안을 따라 사막을 건너는 순간을.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23살의 젊은 의대생 체 게바라는 어쨌든 당찬 각오로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여행이란 게 늘 그렇듯 예기치 못한 사건과 난관들을 만나게 되지만 체는 이 여행덕에 변화된 자신과 만나지요.

길과 사람들, 예기치 못한 난관을 통해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또 있습니다. 때는 1940년대 말.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 살던 판치토의 가족들은 부푼 꿈을 안고 행복을 찾아 국경을 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가족들은 1년에 세 번이나 이사를 하는 등 유랑생활을 계속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한편 아이들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주어집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늘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으니 학교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신세입니다. 《프란시스코의 나비》는 주인공과 가족들이 냉정하고 고된 삶과 마주하며 오히려 스스로 단단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성장소설입니다. 체 게바라가 불합리함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자신의 신념과 미래를 변화시켰다면 이 책의 주인공은 유랑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고통을 겪으며 오히려 단단해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물론 그 곁에 인간과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판치토 가족이 이민국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결말, 그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여행만큼 극적인 사건들을 겪은 여인의 일대기도 있습니다.

여류작가의 과격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인 에어》.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인생. 제인 에어의 삶은 시련의 반복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데다가 첫사랑인 로체스터 씨와의 사랑도 불행으로 치닫게 되니 불행은 끝도 없지요. 신분과 나이의 격차, 거기에다 과거까지 있는 로체스터 씨와 제인 에어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도 흥미롭지만 이 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인 에어란 인물 자체입니다. 열정적인 자아를 가진 매혹적인 여성이 삶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보세요.

넓은 예술서는 가라!

청소년 감각 따라잡는 예술교양서

언제 어디서든 사진을 찍고, 사진에 찍히기 바쁜 친구들. 디카니 폰카니 이미지 천국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청소년이 알아야 할 미술의 모든 것》과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음악의 모든 것》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적절히 활용해 읽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예술교양서입니다. 펼친 페이지 안에 각 사조 작품이나 작가의 이미지와 설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을 시도해 가독성을 살렸다는 게 큰 장점이지요. 특히 미술교양서에선 물감이란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각 사조의 예술가들이 빛, 색, 질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 기존 교양서들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한편 이 시리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근 젊은이들의 관심사인 사진의 역사를 미술사에 포함시켰다는 점이지요. 사진의 개념정리부터 사진술의 발달까지 사진의 역사를 아우른 후반부를 참고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진이 미술 혹은 예술의 한 분야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쉬운 설명과 일목요연한 구성으로 세련미가 느껴지는 예술교양서. 청소년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

김청연 기자

- 《청소년이 알아야 할 미술의 모든 것》 니콜라 바버, 재클린 다이넨 지음 | 이지선 옮김 | 예담프렌드 | 96쪽 | 값 9,800원
-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음악의 모든 것》 니콜라 바버, 메리 뮤어 지음 | 이지선 옮김 | 예담프렌드 | 96쪽 | 값 9,800원
- 《프란시스코의 나비》 프란시스코 지메네즈 지음 | 하정임 옮김 | 노현주 그림 | 다룬 | 222쪽 | 값 8,500원
- 《제인에어 1》 샬럿 브론테 지음 | 유중호 옮김 | 민음사 | 448쪽 | 값 9,000원

